

## “예비고가의 공부법이 궁금해요”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거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녀  
중2, 초1



구독 기간  
1년

###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아이들의 교육에 고민이 많던 시기에 온라인 카페의 공동 구매로 정기 구독을 시작했어요. 위클리 테마, 꿈 찾는 생생 일터뷰, 이슈 콕콕, 전공 소개까지 기사와 주제가 다양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처럼 입시 제도가 낯선 부모에게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먼저 알아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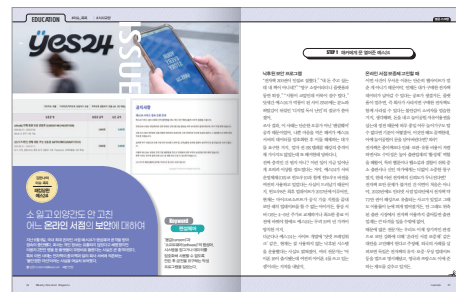


118자

WEEKLY THEME\_ 1등급도 '인 서울' 어렵다?

### 5등급제 팩트 체크

“변화가 잦고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5등급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늘 헷갈렸는데 흐름이 정리되면서 막연한 불안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혼란스러운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앞으로도 5등급제를 자주 다뤄주세요!”



118자

김한나의 이슈 콕콕\_ 해킹당한 예스24

###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어느 온라인 서점의 보안에 대하여

“최근 사회 이슈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전해줘 유용하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첫째가 중2인데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 기사를 참고할 일이 많아요. 특히 고교학점제는 아직 낯설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기사를 미리 꼼꼼히 읽고 아이에게 알려주고는 합니다.

교육특구에 살지 않으면 정보를 받 빠르게 접하기가 쉽지 않는데 기사를 통해 최근 입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 수시 합격생 인터뷰는 합격생의 다양한 학습법이나 선행학습 시기 같은 실제 경험담을 참고할 수 있어 도움이 돼요.

##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도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확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우리 첫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혀요. 특히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지도 궁금해요. 정보가 많지 않으니 더욱 불안합니다. 지금은 국어 학원만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위한 선행학습을 한다면 어떤 학원이나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인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중학생에게 꼭 필요한 공부법을 짚어주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공부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할 텐데 아이들은 종종 부수적인 데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성격별 공부 방법,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관리법 등도 간단히 정리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 Reporter's A/S

고등학교 내신에 빨리 적응하려면 무엇보다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은 방학 동안의 기초 개념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고 선행과 균형을 맞춘다면 보다 수월하게 고등학교 수학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본지 1165호  
‘심화나 선행이나 예비 고  
겨울방학 수학 공부법’  
기사 참고

